

목어

사람이 좋다

사람이 그렇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군중 속에서도 고독에 골갈 짚는 현대인들의 말이다.

사람들은 혼자일 때는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피로를 느낄 때면 도리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도 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마치 고슴도치처럼 혼자 있으면 추위를 느끼고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으려만 가시에 찔리는 아픔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중성은 인간의 애증에 대한 근본적인 불을 생각하게 한다.

자연은 벗 삼고자 산사로 발길을 때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산사에서 대중들이 거쳐하는 요사채에는 일반 관광객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있다. 그런 곳은 대개 별다른 볼거리가 없어도 하지만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 영역만큼은 작은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장소다.

이 '관광인 출입금지' 뜻밖의 볼거리가 없는 관광객들의 말이 문창호자를 통해 들어오기도 한다. "스님들의 공부하는 곳인가봐." 이해해 주는 마음이 고마워 정겹기까지 하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구경을 왔다가 아이가 이곳에 들어오려 하자 엄마가 내뱉는 말이 놀랐다. "애야, 그곳엔 들어가 마라! 사람이 싫단다."

여러 상념이 오갔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가 그냥 저렇게 가버리면 절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관념이 자리잡지는 않을까 걱정이 여려져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출입금지' 구역을 가지고 있다. 자기만의 세계야말로 바로 자기를 만드는 텃밭이라 할 수 있다. 석가는 철저히 고독을 통해 자기와 완전히 만날 수 있었다. 그가 가족과 세속을 떠나면서까지 진리를 찾았던 것은 모든 중생에 대한 애정이 지극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우리도 '출입금지' 구역을 갖고 있다.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이 좋다.

도수(정업도량 회주·본지 본설위원)

김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이후 달라이 라마 방한운동 '새국면'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89년 같은 상을 수상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되고 있다.

김 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해 애써온 지도자로 평가받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불허하는 것은 명분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 방한 성사와 문화주권수호'를 위한 국내외 주요인사들의 선연 이후에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주요 국제인사와 인권단체, 그리고 종교계 대표자들이 정부의 달라이 라마 방한허용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7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이슬랜드의 메레드 맥과이어가 달라이 라마의 방한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온 이후 1980년 남미지역 폭력추방 연대운동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돌포 페레스 에스퀴벌과 1992년 파테말라 원주민 인권운동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리고베르타 멘추재단에서 방한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김대통령 앞으로 보내왔다.

또한 세계적인 인권기구인 '휴먼라이츠 워치'(HRW)는 김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통해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과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16~20일 아시아-유럽정상회담기간에 열리는 아셈민간포럼 종교분과에 참가한 세계NGO들은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과 함께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흐름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16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개신교 강원룡 목사, 불교 법장스님, 원불교 조정근 교정원장, 최창규 성균관장, 김중배 참여연대 대표 명의로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 및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로 접수했으며, 김 대통령

역대 평화상 수상자 아셈 민간포럼 참석자 '방한허용' 강력촉구

김대통령 "신중검토"

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서울 중심의 달라이 라마 방한 성사와 문화주권수호'를 위한 서명운동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돼 이미 10만 여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

방한준비위는 21일 아셈 민간포럼 '서울행동의 날'이 열린 올림픽공원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평화행진에도 참여했다.

이에 앞서 김대통령은 16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달라이



달라이 라마 방한성사와 문화주권 수호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이미 10만 여명이 동참했다. 서명운동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라마 방한문제와 관련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는 달라이 라마 방한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라고 밝혀 기존입장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 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으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불허하라는 정부의 명분도 약해진 만큼 입장변화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의 방한문제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한을 허가할 경우에도 사전에 이를 공식화하면 중국의 거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기습적으로 방한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다.

전후, 11월 15일부터 이틀간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한중일 정상회담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이 달라이 라마의 방한문제 부정부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외교부 입장이어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방한예정일 직전까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방한준비위는 일단 정부의 입장변화를 기대하면서 오는 29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국민결기대회(최소 3000명 참여 예상)를 갖는 등 대정부 비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HRW(Human Rights Watch)를 통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적인 연대로 정부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동국대 불교문화 BK21사업 평가 '대부분 하위권'

제도개혁 실적저조 등 이유

동국대 불교문화 BK21 사업단이 교육부 지정 인문·사회과학 분야 20개 사업단 중 15위로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부가 이 달 초 발표한 '제도개혁' '사업목표' '체제운영' '사업비운영' 등 4개 항목에 대한 1차 평가 결과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불교문화 사업단은 교수 및 연구원들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등은 우수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과 제도개혁에 대한 실적이 저조해 이 같이 평가했다.

당초 불교문화 사업단은 '한국문화센터' '불교전문도서관' 등을 설립하는 대단위 계획을 세웠지만, 자원 마련이 어려워 세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요구한 '추가적인 제도개혁'은, 동국대가 불교문화 사업단 선정과 함께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4천여만원의 '교육개혁 지원비' 중 80%를 학내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구축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교육개혁 지원비의 사용은 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사용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업단 한 관계자는 "규정은 그렇지만 학내 불교문화의 발전을 꾀하는데 사용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교 특성화' 대학이라는 점이 교육부에 강하게 어필되어 불교문화 사업단으로 선정된 만큼 '교육개혁 지원비'도 가능하면 불교화 자료실의 공간을 키우는 등의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동국대는 불교문화 사업단으로 교육부의 지원, 지원을 받는 대신 불교대학 학생의 정원을 줄이고, 대학인 중심제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어, 대학 인력으로부터 적잖은 우려를 사고 있다. 따라서 동국대는 이 같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학 스스로 '불교 발전의 한 축'이라고 호언했던 '동국대 불교문화 BK21 사업단'의 발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동국대 불교문화 BK21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동국대학교 한국학박물관을 상징하는 석기여래 청동입상.

"종교, 더이상 성역일 수 없다"

강준만 교수 등 '인물과 사상'서 종교성장주의 비판

종교에 대한 비판이 계간지 무크지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계간 <담대비평>이 가을호에서 '정점:한국의 지식권력 3-권력으로서의 한국종교'를 다룬 데 이어 최근 나온 <인물과 사상> 16호에서는 '종교는 영원한 성역인가?'고 묻고 있다.

<인물과 사상>은 '무소유'의 법정스님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대표 손봉호 교수, 크리스찬아카데미 명예이사장 강원용 목사 등 우리 시대 대표적 종교인 3명에 대한 인물비평, 불교와

개신교의 전근대성과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다.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는 30쪽에 이르는 머리말에서 '인구의 절반이 넘는 신도들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헌금을 거둬들이면서도 '도리어 가난한 신도들의 주머니를 터는' 종교의 존재 가치를 저울질해보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라고 묻는 본부 대표 손봉호 교수, 크리스찬아카데미 명예이사장 강원용 목사 등 우리 시대 대표적 종교인 3명에 대한 인물비평, 불교와

사회의 마지막 금기로 남아있는 것은 언론과 종교의 유착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언론의 이윤 추구에 도움이 안되는 거라면 그건 비평의 가치가 없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제 더 이상 종교는 성역이 아니다. 과거처럼 종교를 계속 성역으로 간주하는 한 한국사회엔 희망이 없다"고 밝힌 강 교수는 참여적 글쓰기를 하는 지식인들이 종교 문제에 침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몽기 재가연대 시민사회국

장은 '한국불교에 희망은 있는가?'라는 글을 통해 "한국불교를 읽는 두 가지 키워드는 전근대성과 세속화"라고 규정하고 전통적 보수주의의 회복을 촉구했다. 정씨는 전통적 보수주의를 "정해결사처럼 부처님 당시의 고단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또 재가불자들의 신앙 형태도 "구복(求福)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형신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잡지들이 우리 사회의 담론을 형성하고 의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이후 종교 비판이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본설고문: 오은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쇄인: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저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팔관회(八關會)

팔관회는 팔계제의 실천을 통하여 나라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로서,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팔계제는 불자들이 마음을 맑히는 수행으로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릇됨을 방지하여, 선을 기르고 악을 막아 공덕을 쌓은 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고장 부산에서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제불보살님과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민족통일의 원만성취와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하여 전통불교의식인 "팔관회"를 지극한 마음으로 봉행하고자 합니다.

팔계제(八齋戒)

1. 불살생(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2. 불투도(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3. 불음행(음행을 하지 말라)
4. 불망어(거짓말과 무, 악한 말, 꾸미는 말, 허황된 말을 하지 말라)
5. 불음주(술을 마시고 취하지 말라)
6. 지나치게 향을 바르고 춤추지 말라
7.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말라)
8. 때안된 때 먹지 말라

삼신이온 국악과 함께가는 찬불공양 민공·육법공양 범의 연등공양 수록고혼 천도의식

팔관회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867-0501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해운대 백사장

동참방법

1. 팔관회 연등 접수(1등 10,000원) 가족의 소원을 담은 연등으로 해운대 백사장을 장엄
2. 호법광명등 접수(가족등 1등 100,000원 / 팔팔렛에 소개) 각 사찰(단체)의 신도대표들과 불자 및 각계 지도자
3. 수록고혼 천도제 접수(영가 1위 5,000원) 전통의식으로 수록고혼 천도제 봉행

실천운동

1. 팔관제계 10월 26일(목/음 9. 29) 각 사찰에서 입제 10월 28일(토/음 10. 2)해운대 백사장에서 회향
2. 사랑의 절미운동 일일 한끼를 금식하고 절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움시다.
3. 2002년 아시아게임 홍보 및 자원봉사단 모집 내 고장 부산의 큰 행사에 불교계가 앞장서도록 합시다.

후원: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의회·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부산불교신도회·부산불교실업인회·釜山日報·국제신문·KBS·부산방송총국
MBC·부산문화방송·PSB부산방송·BBS·부산불교방송·부산불교텔레비전·대한불교신문외 교계 각 언론사